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고현진 신임 원장 체제 출범



고현진 원장 체제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정식 출범했다.

KIPA는 지난달 4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단형 2대 원장의 후임으로 고현진 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신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IBM의 임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경영인 출신인 고 사장이 SW 진흥의 핵심 정부기관인 KIPA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제까지의 정서상 파격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고 신임원장은 "현업에 있던 사람으로 시장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높이 산 것 같다"며 "행정정보보다는 실무자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화, 내실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책을 곧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KIPA는 내부적으로 정통부가 선정한 9대 신사업 중 콘텐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텔레매틱스 등 세 가지를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 참여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실무지원기관으로서 적극 활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IT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ITA)에 이관하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사업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KIPA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와 시스템온칩(SoC) 산업활성화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 각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사업을 모아 KIPA에서 총괄 관장하기로 했다.

넷마블 신임 대표이사에 노병렬 부사장



게임포털 넷마블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어 노병렬(44)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이사는 일본과 한국 후지쓰에서 14년간 게임과 인터넷 사업 등을 담당했으며, 회사 창립 초기인 2001년 4월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돼 창업주 방준혁씨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왔다.

회사 창립 이후 사장직을 맡아 온 방준혁 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서비스 기획 담당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방 사장은 1년 전부터 넷마블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전문경영인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온라인 마케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플레너스와 합병 때문에 대표이사 교체에 미뤄왔으나 합병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교체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과 플레너스의 합병회사는 플레너스의 김정상 대표이사와 넷마블의 노병렬 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 2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영화사업과 인터넷사업을 할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브리지텍, 최용호 전 인텔아시아 임원 영입



통합망 솔루션 전문 기업을 지향하는 브리지텍이 사업영역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 인텔 아시아 퍼시픽(싱가폴 소재) 통신사업자 시장 담당 임원을 역임한 최용호(42)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최용호 부사장은 인텔 아시아 퍼시픽, 젯스트림, 패러다임 네트워크 등 다국적 선도 기업의 아시아 핵심 경영진으로 일해 왔으며, 해외 이주 이전에는 인텔 다이얼로직 한국 지사장 및 삼보컴퓨터, 삼보정보통신에서 전략마케팅, 사업개발 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브리지텍은 최부사장 합류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업무 개선 및 조정을 실시해 4개 중점 핵심기술의 단계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금융권 CTI 최강자' 라는 이미지에서 '통합망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기업을 변신시킨다는 계획이다. 브리지텍은 최용호 부사장 영입을 계기로 사업영역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금년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130% 이상 성장한 30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5월말 기준 수주금액이 13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즈소프트, CTO에 김무정 이사 영입



와이즈소프트는 최근 한국HP의 김무정 이사를 신임 CTO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무정 이사는 와이즈소프트 합류 전에 14년간 한국HP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마케팅, 협력사 영업팀장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솔루션 마케팅 담당시 HP의 서버와 협력사의 서버보안 솔루션을

접목시켜 특허청, 조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약 50여 공공 사이트에 구축해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김무정 이사는 앞으로 HP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와이즈소프트의 연구개발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와이즈소프트는 지식경영솔루션 전문업체로 올초 부산광역시청, 대우 제약 등 공공 및 제조부문을 중심으로 12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지난해 전체 솔루션 매출의 70%가 공공부문을 차지할 정도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식경영컨설팅팀을 두고 전문 CTO를 영입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케이블협회 신임회장에 유삼열씨 선임

공석 중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임 회장으로 유삼열(61) 전 부산 MBC 사장이 선임됐다. 케이블협회는 지난달 조선히에서 이사회를 열고 유삼열씨와 박원세 CJ미디어 사장을 각각 신임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26일 총회에서 최종 추천했다.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정관 변경에 따라 상임으로 선임했다.

케이블협회가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 있던 차기 회장을 선임함으로써 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를 비롯한 케이블TV업계의 주요 현안 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계자는 신임 회장 선출 배경과 관련해 "유삼열 신임 회장은 SO들의 추천에 의해 회장으로 선임됐지만 PP 진영에서도 반대의견이 없었다"며 "이변이 없는 한 총회 추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신임 회장은 42년 부산 출생으로, 87년 동아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69년 부산문화방송에 입사해 MBC와 인연을 맺은 뒤 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MBC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케이블협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와 2월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유재홍 전 SO협 의회장의 사퇴를 승인함에 따라 회장이 공석 상태였다.

정통부 장관 정책 자문관에 벤처기업 대표 송정희씨 선임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 자문관에 송정희(45) 텔리젠 대표가 선임됐다.

송 자문관은 앞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9대 신성장동력' 마스터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장관의 정책 보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 자문관은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를 거쳐 지난 2001년까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한편 전 장관의 정책 보좌관에는 최수만 청와대 행정관(전 민주당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인포섹, 신임대표이사에 황연천 사장 선임



SK계열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전문업체인 인포섹은 그동안 주력해온SK그룹 보안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보안시장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일 황연천(51)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CA코리아 IT영업 및 마케팅 담당 상무를 역임한 황연천 사장은 연

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효성, IBM코리아, 필립스 코리아 등을 거치는 동안 줄곧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담당 해오면서 다양한 채널 및 Direct 마케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포섹은 이번 신임사장의 영입을 계기로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대외 정보보호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황사장이 가진 풍부한 정보보호 지식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보안시장을 개척해 나갈으로써 향후3년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10%이상을 유지하는 국내 제일의 종합 정보보호 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6월 설립된 인포섹은 보안컨설팅, 보안SI, 보안솔루션 운영 및 관제, 보안솔루션 유통 등 정보보호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2002년에 약91억의 매출과 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업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美 컴퓨터서비스 한국 지사 설립 ... 지사장에 존 노스우드

IBM·EDS에 이어 세계 3위 IT 서비스회사인 미국 컴퓨터서비스가 한

국지사를 정식 설립하고,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미국 본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CSC코리아(대표 존 노스우드)는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빌딩에 한국지사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본부를 통해 한국 내 사업을 추진해온 CSC는 한국에서 독자적인 영업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CSC코리아는 앞으로 글로벌 고객의 한국법인인 오티스LG·대우캐리어·듀퐁코리아·모토로라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데스크톱·서버·네트워크 운영관리, 헬프데스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CSC코리아는 7월 중 모토로라 코리아 소속 엔지니어 7명을 영입하는 한편 사업개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내달 중 인력을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모, 천신일 세종 회장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



나모인터랙티브가 천신일 세종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나모 인터랙티브는 천신일 회장, 김진우 아이비젠 대표, 김학윤 세종게임박스 기획조정실장 겸 나모인터랙티브 기획조정실장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으며, 김학선 세종컨설팅 대표이사가 비상근

감사로 선임됐다. 나모는 이번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사명을 세종나모 인터랙티브로 바꾸고 사업다각화를 위해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유통,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김학윤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사업인 웹에디터 등과는 별개로 신규사업으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세종게임박스와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사업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마르코니, 신임 지사장에 김영석 이사 선임



광전송장비업체 한국마르코니커뮤니케이션스가 노태환 지사장의 후임으로 계약 및 법률 조정(legal & commercial) 업무를 맡아온 김영석(43) 이사를 새로운 지사장으로 선임했다.

본사 차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국내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로 어느 때보다 위기가 감되고 있는 상

황에서 지사장을 맡은 김 사장은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국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르코니의 현재 직원은 11명으로 이미 영업지원·기술지원·관리직 등 지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몸집을 줄였다.

김 사장은 "1년여 가까이 광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가 나오지 않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대용량 장비보다는 중소형 장비 사업에 치중하며 시장이 회복될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김 사장은 "유경텔레콤, 에스넷시스템 등 기존 채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업 및 기술부문을 후방에서 지원, 국내 광전송장비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임캐피탈, 신임 사장에 박원순 전 SK생명 대표 선임



박원순 전 SK생명 대표가 프라임산업의 자회사인 프라임벤처캐피탈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박원순 신임 대표는 교보생명 상무, 동아생명 부사장을 거쳐 통합 SK생명 대표를 역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박원순 대표는 취임 소견을 통해 "창투업계와 벤처기업의 침체 원인은 정보통

신과 IT분야와 관련한 무분별한 투자에 있다"며 "시장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만큼 각 산업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투자와 신규 산업 투자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종진 전 프라임벤처캐피탈 대표는 한글과 컴퓨터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인사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수만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박재규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박영대 예술진흥과장 김갑수 영상진흥과장 김태훈 게임음반과장 김용삼 문화콘텐츠진흥과장 최병구
한국관광공사	사장 류건
기획예산처	재정개혁 2과 서기관 이강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책기획단장 박광진 기반시설보호단장 이홍섭 전자거래보호단장 이재일 산업지원단장 이경구 경영지원실장 백의선